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TO KILL A KINGDOM

가제 : 바다왕국을 없애라

저자 : Alexandra Christo

출판사: Feiwel & Friends

발행일: 2018년 3월 6일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 **할리우드 리포터 선정, ‘할리우드가 주목할 만한 신간’**
- * **영국, 독일(pre-empt 5만 유로), 브라질, 터키, 스페인, 헝가리 판권 계약**
- * **미국 출판사에서는 출간일 전에 이미 재쇄 완료**
- * **“‘인어공주’를 전혀 다른 이야기로 재구성한 이 소설은 뛰어난 세계관과 논스톱 액션으로 독자들을 계속해서 붙잡아 둔다.” – 북리스트 온라인**
- * **“‘인어공주’에 담긴 음울한 동화적 스토리를 좋아하는 독자라면 이 잔혹한 이야기에 깊이 매료될 것이다.” – RT 북 리뷰**

바다 속 왕국과 땅 위의 왕국에서 가장 뛰어난 사냥 실력을 뽐내던 두 존재가 만난다. 언젠가 왕국 전체를 이어 받을 왕족이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사실 둘은 절대 만나서는 안 되는 사이였다. 바다 여왕의 딸이자 사람을 유혹해 심장을 빼앗는 사이렌들 중에서 오로지 왕의 혈통만을 노리고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리라와, 미다스 왕국의 아들로 태어나 주변 나라들에서 자꾸 죽어 나가는 왕족들을 대신해 사이렌을 사냥하는 왕자 엘리안이 그 둘의 정체가 될 때문이다. 그러나 서로를 죽여야 하는 리라와 엘리안은 이번 사냥이 지금까지처럼 신나고 손쉬운 일이 되지 않을 것임을 직감한다. 둘의 만남은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 안데르센의 고전 동화 ‘인어공주’를 피도 눈물도 없이 인간을 잡아들이는 사이렌과 그런 사이렌을 잡는 왕자의 이야기로 신선하게 변형한 이 판타지 소설은 액션과 모험, 러브스토리까지 흥미진진한 요소가 모두 결합된 데뷔작이다. 바다 왕국 디아볼로에서 여왕의 딸로 태어난 사이렌, 리라의 침실에는 열일곱 개의 심장이 고이 보관되어 있다. 매년 생일날 바다를 지나던 인간에게서 빼낸 전리품이다. 사이렌들의 여신, 케토가 인간들의 손에 무참히 죽임을 당한 후부터 디아볼로에서는 자신의 생일날, 인간을 노래로 유혹해서 심장을 꺼내오는 것이 중요한 행사로 자리잡았다. 케토를 살해한 인간들에게 복수하고 아직 바다 왕국이 건재하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의식이 된 것이다. 리라가 아직 어려서 직접 사냥에 나서기 어려운 시절에는 엄마가 대신 사냥을 해왔고, 희생양은 항상 주변 왕

국의 왕자였다. 리라만큼 어린 소년도 있었고, 수영이 덩수룩하게 자란 나이든 사람도 있었지만 한 번도 왕자가 아닌 적은 없었다. 사이렌이 노리는 대상은 반드시 남자여야 할 필요도 없고 왕족일 필요는 더더욱 없었기에 다른 사이렌들은 그저 사냥을 나갔을 때 운 나쁘게 뱃길을 지나던 평범한 사람들을 유혹했지만, 바다 여왕은 달랐다. 리라 대신 잡아들인 왕자의 심장을 건네며, 언젠가 한 나라를 통치할 존재를 없애는 것은 그 나라의 미래를 없애는 것이라고 리라에게 가르쳐 주었다. 마침내 직접 사냥에 나설 수 있는 나이가 되자 리라는 엄마의 뜻을 그대로 이어 받아 오직 왕자만을 사냥했다. 그렇게 모은 심장이 열일곱 개, 이제 또 하나를 추가할 때가 다가왔다. 그러나 생일이 2주나 남은 시점에 사촌 칼리아를 도와주려고 나선 사냥에서 열여덟 번째 왕자의 심장을 꺼내온 리라에게는 대단한 사냥꾼이라는 칭찬 대신 무서운 처벌이 기다리고 있었다.

바다 여왕은 수집한 심장이 60개가 되면 여왕에게 왕좌를 물려줘야 하지만, 리라의 엄마는 50개가 넘어간 후부터 공개적으로 사냥 성과를 알리지 않았다. 왕좌를 넘기고 평범한 사이렌으로 돌아오는 순간 신비한 마법의 힘이 모두 소멸되어 힘 빠진 노인네처럼 변하는 걸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자신을 꼭 빼 닮은 딸, 리라가 생일도 아닌데 왕자의 심장을 가져온 것이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 여긴 여왕은 사이렌에게 가장 모욕적인 처벌을 내린다. 인간의 형상으로 물에 나가 사이렌들을 괴롭혀온 왕자, 엘리안의 심장을 가져오라는 것이다. 인간을 단숨에 흘릴 수 있는 사이렌의 노래와 목소리까지 다 빼앗긴 채로 리라는 과연 그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여왕이 정한 기한 내에 심장을 가져오지 못하면, 리라는 영원히 인간으로 살아야만 한다.

미다스의 왕자로 살기보다 40명의 굳센 선원들을 이끄는 '사드'호 선장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엘리안은 이제 정신 차리고 왕궁에서 나라 일을 배우라는 부모님의 압박이 나날이 거세지는 상황에서도 한 가지 생각 뿐이다. 아직도 잡지 못한 사냥감, 솔한 왕자들의 목숨을 앗아간 빨간 머리 사이렌을 반드시 잡아서 없애야 한다는 것이 엘리안에게는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생일대의 목표였다. 어느 날 바다에서 물에 빠져 허우적대던 예쁜 소녀를 구출했을 때만 해도, 그녀가 바로 그토록 노려온 리라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리라는 그가 엄마가 말한 엘리안임을 곧바로 알아봤지만, 심장을 도려내는 대신 더 재미 있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고는 얼마간 물에 머물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엘리안에게,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이렌을 전부 싹쓸이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겠다고 귀뜸한다. 엘리안은 그 말에 솔깃하지만, 처음 본 그녀의 말을 덜컥 믿을 수 있을지 혼란스러워한다. 인류 최대의 적인 사이렌을 모두 없애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아야 할까? 리라의 속내는 무엇일까? 정해진 기한은 빠르게 다가오고, 두 사람의 거래는 스스로도 예상치 못한 감정의 변화로 점점 알 수 없는 결말을 향해 나아간다.

흡입력 있는 문장과 호기심을 자아내는 스토리가 이어지는 매력적인 판타지 소설이다.

<저자 소개>

알렉산드로 크리스토(Alexandra Christo)는 문예창작을 공부하고 런던에서 카피라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위 작품이 데뷔작이다.

Praise for
TO KILL A KINGDOM
ALEXANDRA CHRISTO

"Stellar world building and nonstop action will keep readers hooked on this twisted reimagining of
"The Little Mermaid." — **Booklist**

"Fantasy fans will like the idea of sirens and piratelike princes as the characters who are imaginative
and well developed." — **School Library Journal**

"Hot New Book with Hollywood Appeal". — **The Hollywood Reporter**



The screenshot shows a red header bar with a white hamburger menu icon on the left, the "The Hollywood Reporter" logo in the center, and a white magnifying glass icon on the right. Below the header, the text reads: "**To Kill a Kingdom** (Feiwel & Friends, March 6) by **Alexandra Christo** Agency: UTA". The main text describes the book as a dark twist on *The Little Mermaid*, featuring a siren princess who kills human princes and is transformed into a human as punishment, meeting a siren-killing prince. It notes that the book is already going into a second printing.

"**This book had me hooked from the very first page**, Lira is such an interesting character from the very beginning. I loved that she is brutal, full of rage and powerful. Alexandra Christo said this about her female characters: "I write about strong women who break traditional gender roles. I think it's important for **young women to know there aren't limits on what they can achieve and that they don't need to fit into certain stereotypes** of what is considered the status quo."... Lira fighting off her demons which in this case being her mother was empowering to read, especially in a Young Adult fiction whose audience are at an age when this can truly make a difference." — [Yorkshire Post, highlighting the #MeToo aspects of this book](#)

제목 : STANLEY WILL PROBABLY BE FINE

가제 : 스탠리는 괜찮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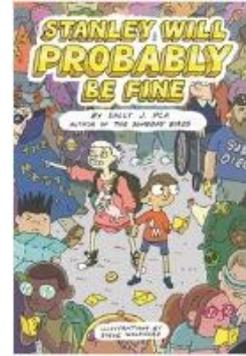
저자 : Sally J. Pla

출판사: HarperCollins

발행일: 2018년 2월 6일

분량 : 288 페이지

연령 : 8 ~ 13세



- * “다양한 면모를 지닌 주인공이 불안감을 가라앉히고 살아가는 법을 서서히 배워가는 과정을 매우 심층적으로 그린 책. 생각이 평범한 기준을 넘어서 제멋대로 흘러가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이다.” - 커커스 리뷰
- * “때로는 감당하기에 너무 거대한 세상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주인공을 통해 보여준다. 인간애와 따뜻한 마음이 가득한 재미 있고 생동감 넘치는 이야기!”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Frazzled』의 작가 부기 비벳

반에서 덩치도 키도 가장 작은 것으로도 모자라 ‘감각 처리 장애’라는 병 때문에, 걸핏하면 껌질 속에 쑥 들어가버리는 거북이처럼 몸도 마음도 굳어버리는 스탠리가 뜻밖의 장소에서 구세주를 만난다. 바로 별 생각 없이 그려본 만화주인공, 존 록다운이다. 존 만큼이나 예고 없이 찾아온 이웃이자 새 친구 리버티의 열띤 응원에 힘입어, 아무도 제대로 공감할 수 없는 자신만의 불안 속에 끙끙 갇혀 살던 스탠리의 답답했던 삶에 점점 숨통이 트이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즐거움도 조금씩 생겨나는 흐뭇한 과정이 귀여운 일러스트와 함께 이어진다. 혼란스러운 사춘기 시절 중에서도 어린이 티를 갓 벗어났지만 어른과는 아직 거리가 멀어서 어쩌면 가장 적응하기 힘든 중학교 시절의 여러 가지 장애물과 견뎌야 할 과정들을 스탠리의 시선에서 생생하게 드러내면서 기발한 상상력으로 신선한 해결책을 찾아보는 흥미로운 소설이다.

스탠리의 생활은 이미 집에서도 편안하지가 않았다. 나이는 겨우 두 살 더 많지만 몸무게는 거이 15 킬로그램이나 더 나가는 형은 일 때문에 늘 집을 비우는 부모님이 없을 때마다 스탠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다. 영민한 스탠리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딱히 이유도 없이 육중한 몸으로 꿈쩍 못하게 만들고, 개 집에 들어가게 하는 등 못된 장난도 서슴지 않는다. 부동산 일을 하는 엄마는 형이 틈만 나면 동생을 괴롭힌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일일이 혼내기에는 피곤해서 대충 넘어가는 날들이 많고, 밖에서 쌓인 스트레스 때문에 스탠리에게 ‘이젠 혼자 알아서 이겨내는 법도 알아야 한다’는 잔소리까지 하기 시작했다. 아빠는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폭 빠져 해외 봉사를 나가면 몇 달씩 집에 없을 때가 많아서 형의 버릇을 엄하게 다스리고 스탠리가 심적으로 의지할 사람도 없었다. 게다가 파킨슨 병을 앓는 할아버지는 보청기가 없으면 귀도 잘 들리지 않는데 이런저런 불편함을 짜증으로 폭발시키는 편이라, 스탠리를 불편하게 하는 또 다른 존재였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도 학교에서 시작된 ‘비상대비 훈련’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었다.

안전 사고가 일어났을 때 학생들이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굳건한 원칙을 세운 교장선생님은, 군대나 특수부대 훈련마냥 수업 도중에 갑자기 비상상황을 선포하고 대피 연습을 하는 모의 훈련을 도입했다. 문제는 평소에도 인파로 북적이거나, 소음이 심하거나 갑작스러운 상황에 처하면 공황 상태가 되는 스탠리에게 이런 훈련은 그저 놀라는데 그치지 않고 아예 다리에 힘이 풀려 기절하기 직전이 되거나 구역질, 구토까지 일으키는 극심한 자극이 된다는 것이다. 몇 번씩 그런 일이 반복된 후에야 엄마는 학교에 스탠리의 특별한 문제에 대해 알렸고, 심리적인 불안 수준이 평범한 수준을 넘어선다는 사실을 이해한 양호 선생님 덕분에 스탠리만을 위한 처방이 내려졌다. 학교에서 모의 훈련이 시작되면 조용히 숨어 있을 수 있는 ‘준비실’을 마련해준 것이다. 주변이 어수선하고 소란스러워져서 정신이 혼미해질 것 같은 상황이면 언제든 들어가 있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서 훈련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게 된 스탠리는 어느 날, 혼자 준비실에 앉아 있다가 자신과는 영 다른 존재, 학교의 안전을 지키는 슈퍼히어로를 떠올리며 만화를 그리기 시작한다. 존 록다운이라 이름 붙인 이 영웅은 만화라면 모르는 것이 없는 스탠리가 자신만의 작품으로 그려낸 첫 시도이기도 했다.

한편, 샌디에이고 곳곳의 관광 명소를 중심으로 ‘만화 보물찾기’ 행사가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스탠리와 가장 친한 친구 준은 흥분에 휩싸인다. 만화 속 줄거리와 슈퍼히어로의 힘을 단서로 삼아 시내 여러 곳에 숨겨진 황금 동전 일곱 개를 찾으면 승리하고, 우승자에게는 만화광들에게는 최고의 축제인 ‘만화 페스티벌’에 VIP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 태어나기 전부터 나온 고전 만화를 비롯해 만화라면 모르는 것이 없는 스탠리에게 우승은 따 놓은 것이나 다름 없었다. 그러나 단서가 하나 둘 공개될 때마다 뜻밖의 장애물이 발목을 잡는다. 보물 찾기에 나선 다른 아이들을 비롯해 무수한 인파로 가득한 시내를 누비다가 공황 상태에 빠진 발자국도 더 걸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결국 자꾸 주저앉아 버리는 스탠리에게 질린 준은 달린이라는 다른 친구와 대회에 참가하겠다고 선언하며 스탠리의 가슴에 못을 박는다. 때마침 옆집에 이사온 미스터리한 소녀, 리버티를 알게 된 스탠리는 선뜻 함께 하겠다는 이 알쏭달쏭한 새 친구와 함께 반드시 우승을 차지하리라 결심한다. 도망가고 싶을 때마다 직접 그린 슈퍼히어로, 존 록다운을 떠올리며 “존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 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떠올려보면서 도망가기보다 앞으로 나가는 법을 터득하기 시작한 것이다. 과연 스탠리는 VIP 티켓을 따낼 수 있을까? 나약한 자신을 버리고 가버린 준과의 우정은 이대로 끝인 걸까? 왜 리버티는 부모님과 떨어져 삼촌네 집에서 학교에도 오지 않고 혼자 공부하게 됐을까? 눈에 보이지 않는 두려움과 치열하게 맞서 싸우는 스탠리와 곁에서 응원하는 친구들, 가족들의 이야기는 동화 같은 결말 대신 자극히 현실적인 엔딩으로 이어진다.

<저자 소개>

샬리 J. 플라(Sally J. Pla)는 콜게이트 대학교와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에서 영문학을 공부하고 기자, 교육자로 일했다. 데뷔소설로 『The Someday Birds』를 발표했다.